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의 환경 보전 실천과 음악적 형상화: “92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 분석을 중심으로

이 소 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유 옥 란**

(백석문화대학교 강사)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1992년 조선일보의 환경 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의 환경 보전 실천과 음악적 형상화 방식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며 음악적으로는 콘서트와 발매 음반을 포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음악인들은 자신이 부를 노래를 직접 작사·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singer-songwriter)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례는 싱어송라이터가 자신의 음악을 통해 환경 보전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구현한 중요한 실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싱어송라이터는 자신이 창작한 음악 작품에 가사를 붙여 ‘목소리’라는 신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음악을 형상화하는 뮤지션을 지칭한다.¹⁾ 이들은 단순히

* 제1저자.

** 교신저자.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사와 작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실연자(performance artist)를 넘어 창작자(producer)로서의 역할을 병행한다. 신행 연구자 이영미는 싱어송라이터를 ‘자작곡 가수’의 용어로 지칭하면서 대중음악 범주 안에서 작가 의식을 가지고 작품 세계를 발전시키는 이들로 정리하였고,²⁾ 박애경은 “작가주의적 성향을 지닌 자작곡 가수들”³⁾을 싱어송라이터로 개념화하며 자신이 부를 노래를 작곡하고 어쿠스틱 기타나 피아노 등의 솔로 악기 연주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그 범주에 포함했다. 주제적이고 작가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싱어송라이터 작품에는 독창성, 진정성,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처럼 작가 의식이 반영된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은 창작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음악과 주제 양상에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중음악이라는 범주 속에서 청중과의 조응을 통해 의미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일오비(015B)는 한 인터뷰에서 “저희 음악은 분명히 대중을 겨냥하는 대중음악입니다. 하지만 항상 신문을 뒤적이며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겪는 현실을 음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싱어송라이터의 작품에서 그 음악을 수용하는 대중들의 공감적 요소와 더불어 창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동시에 고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싱어송라이터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는 포크 음악을 매개로 한 1970년대 청년 문화 시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번안곡 형태로 향유되던 포크 음악은 싱어송라이터들에 의해 자작(自作)과 자연(自演)을 실천하는 음악적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69년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개최되었던 한대수의 귀국 공연은 창작 모던 포크 음악의 출발점을 알리는 첫걸음이었으며, 1971년 발매되었던 김민기 1집 앨범 《김민기》는 싱어송라이터의 첫 창작 앨범으로서 한국 싱어송라이터의 시대를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

1) 이소진, “1970년대 한국 싱어송라이터의 작가의식과 표현 양상 고찰,” 『예술디자인학연구』 24/2 (2021), 28.

2)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서울: 민속원, 2006), 44.

3) 박애경,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책세상, 2000), 48.

4) 권혁중, “『솔직한 音樂』 지향...강렬한 메시지,” 『조선일보』, 1993년 1월 8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3010800239109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3-01-08&officeId=00023&pageNo=9&printNo=22222&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다. 박준흠에 따르면 김민기의 1집 앨범은 사랑과 이별을 담아내는 대중음악적 도구를 넘어 사회적 발언과 지식인의 자의식을 표현하는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⁵⁾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싱어송라이터들이 매개로 삼는 음악 장르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는 라이브 공연을 중심으로 언더그라운드 신에서 활동하던 음악인들에 의해 포크, 록, 블루스, 발라드, 보사노바, 퓨전재즈 등의 다양한 음악 장르가 활용되었으며, 곡의 주제 의식 또한 이전보다 세분화되었다. 이들은 ‘가수’보다는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주체적인 창작 태도를 기반으로 대중음악의 다변화를 선도하였다. 동시에 작가 의식을 바탕으로 가치 체계를 형상화하면서 대중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⁶⁾

1990년대의 싱어송라이터들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 시대 의식을 음악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인터넷과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급격히 발전하여 음악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새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했다. 조일동은 1990년대를 음악 스타일의 변화로 음악 산업이 확대되고, 국내외 음악적 흐름을 동시대적으로 발맞추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주장했으며,⁷⁾ 이규탁은 1980년대 경제 호황기를 지나 문화 산업의 주요 수용자가 된 10대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 음악 스타일의 변화를 근거로 1990년대를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바라보았다.⁸⁾ ‘신세대’로 대변되었던 1990년대의 새로운 수용자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나간 문화의 주역이었다. 1990년대에 활동했던 음악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감각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의식과 태도를 음악에 담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중심에는 직접 곡을 작곡하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해철과 공일오비, 서태지와 아이들은 자신

5) 박준흠, 『대중음악 Sound 3』(서울: 포노, 2011), 65.

6) 이소진, “동아기획의 음악적 실천과 가요사적 의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83.

7) 조일동, “1990년대 한국대중음악 상상력의 변화: 전자악기와 샘플링, 그리고 PC 통신,” 『음악논단』 43 (2020), 165.

8) 이규탁, 『케이팝의 시대』(파주: 한울, 2016), 48.

들의 앨범에 드림 머신과 신시사이저, 시퀀서 등을 활용하여 전자음악적 사운드를 제시함⁹⁾과 동시에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주제 의식을 곡에 담아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신세대 문화는 1970년대 청년 문화와 유사하게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라 생활 방식과 사유 방식이 변화하는 문화적 현상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특히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 1집 《서태지와 아이들》의 열풍은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알리며, 1990년대가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독자적 세대 감각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었다.¹⁰⁾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개인들은 인터넷을 활용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세대 감각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들은 “인간과 사회, 세태에 대한 자각과 반성”적 태도를 음악에 담으며 새로운 음악적 형태를 제시해 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¹¹⁾

싱어송라이터는 작사와 작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주제 의식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전문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곡을 제공받아 노래하는 일반 가수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특히 국내 음반 산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문예부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음반사 체제에서 전속 가수가 전속 작사가·작곡가의 곡을 받아 부르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 따라서 당대 가수가 노래로 전달한 메시지는 가수 개인의 의식이라기보다, 작사가가 창작한 서사와 정서의 발현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싱어송라이터의 등장은 단순히 음악 제작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창작 주체가 곡의 ‘해석자’에서 ‘발화자’로 전환되는 계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가수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노래의 메시지가 외부 필자의 의식에서 비롯되던 시대에서 곡을 직접 쓰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를 통해 가창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내면적 목소리를 드러내는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싱어송라이터들은 기성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메시지를 언어적 표현

9) 조일동, “1990년대 한국대중음악 상상력의 변화: 전자악기와 샘플링, 그리고 PC 통신,” 174.

10)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342.

11)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348.

을 통해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장르의 선택, 곡의 형식과 구조, 악기 편성, 음향적 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실험적 시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특정 시대적 구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되기보다는 각 아티스트의 개별적 성향과 창작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어송라이터는 오랫동안 단순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음악인’으로 평가되거나, 대중음악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별도의 기준이나 이론적 틀 없이 다루어져 왔다. 싱어송라이터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음악적 능력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곡의 창작 의도’와 ‘음악에 나타난 창작자의 가치관과 세계관’, ‘음악적 형상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창작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탐구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싱어송라이터를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음악적·문화적 의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 대중음악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의 작가주의적 태도에 집중하여 그들의 실천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전 시대의 주제 양상과는 구분되는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들에 주목했으며 특히 1992년에 개최된 환경 보전 프로젝트 “내일은 늦으리”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갔던 싱어송라이터들이 가사를 통해 전달했던 메시지와 음악적 형상화 방식에 주목했다. 1992년에 시작된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진행된 환경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참여한 음악인들은 환경을 주제로 직접 곡을 창작하며 자신들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대중음악이 사회적 의제와 긴밀히 호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전무하다. 이는 “내일은 늦으리”가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는 한국 대중음악이 사회적 담론을 수용하고 변화를 촉발하는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개최되던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의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점차 희석되는 양상을 보였다. 『90년대를 빛낸 명반 50』에 따르면,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가 “첫 번째 음반과 같은 질을 담보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콘셉트 음반에서 중요한 ‘뮤지션으로서의 의식’이 결여된 음반을 양산”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지적한다.¹²⁾ 또한, 당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고 화제성이 있다는 이유로 음악 창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수들이 포함되게 되면서 음악 창작을 통해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행사의 의도는 점차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2년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악 제작을 넘어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뚜렷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낸 가장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일은 늦으리”의 본래 취지와 역사적 함의를 가장 충실히 드러내는 1992년 사례에 집중하여 분석했다. <92 내일은 늦으리>¹³⁾ 앨범에 수록된 총 9곡의 가사를 분석하여 작품에 내재된 작가 의식을 도출하고, 주제 전달을 위해 활용된 음악적 요소와 표현 방식을 정리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은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들이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와 그 사회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92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 개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에서도 환경 보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회적 담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일보는 쓰레기 오염 현황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고, 환경 마크가 포함된 스티커를 배포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로 1992년의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도 대비 7.7% 감소하였으며, 1993년에는 10% 이상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전반적인 환경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끈 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¹⁴⁾

12) 신승렬, 김영대, 오준환 외, 『90년대를 빛낸 명반 50: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 1990년대』 (파주: 한울, 2006), 88.

13) 신승훈, 서태지와 아이들, 푸른하늘 외, <92 내일은 늦으리>, 대영기획 DYS-017 (1992).

1992년 10월 25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된 환경 보전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와 이후 LP, 카세트 테이프, CD의 3중 형태로 발매된 음반은 단순한 화제성을 불러일으킨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경 운동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기능하였다. “내일은 늦으리” 콘서트는 KBS 1TV와 KBS 2FM을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¹⁵⁾되었으며, 음반은 환경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매개체로 활용되었는데,¹⁶⁾ 이러한 전개는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가 음악을 매개로 사회적 담론을 확산시키는 사례로서 사회 문화적 의미를 드러낸다.

KBS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내일은 늦으리” 콘서트의 입장권은 20분 만에 매진을 기록했고,¹⁷⁾ KBS의 공연 실황 중계 방송 또한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며 그 시기를 대표하던 11개의 팀(솔로 가수 6명, 그룹 5팀)이 출연하여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내일은 늦으리” 환경 보전 슈퍼콘서트는 한국에서 이러한 공연이 개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화적 사건으로 평가된다.¹⁸⁾ 또한, 1992년 11월 20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해당 행사에 참여했던 가수들은 환경 공연의 출연료 1천 1백만 원 전액을 환경기금으로 기증했으며, 조선일보사와 한국연예제작협회는 음반 테이프 5천 개를 제작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무료 배포하여 청소년들의 환경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¹⁹⁾

14) 조선일보 환경운동 사이트, <http://grand.chosun.com/sub5.html> [2025년 1월 18일 접속].

15) ““내일은 늦으리” 25일 공연,” 『조선일보』, 1992년 10월 20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10200023910100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10-20&officeId=00023&pageNo=1&printNo=22144&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16) ““내일은 늦으리” 테이프 무료배포,” 『조선일보』, 1992년 12월 22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122200239129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12-22&officeId=00023&pageNo=29&printNo=22207&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17) 장유정, “[장유정의 음악 정류장] [120] 내일은 늦으리,” 『조선일보』, 2024년 4월 18일,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04/18/E3CFNKDLRNHYBGSHZ7OO6R4WVE/ [2025년 1월 20일 접속].

18) 신승렬, 김영대, 오준환 외, 『90년대를 빛낸 명반 50: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 1990년대』, 85.

19) ““내일은 늦으리” 테이프 무료배포” [2025년 1월 18일 접속].

〈그림 1〉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 프로젝트(1985)



〈그림 2〉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1992)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난민 구제를 위해 라이오넬 리치(Lionel Richie)와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을 중심으로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레이 찰스(Ray Charles),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 밥 딜런(Bob Dylan), 다이애나 로스(Diana Ross) 등 인기 팝스타 4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레코딩을 진행했던 1985년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다.²⁰⁾ “위 아 더 월드” 프로젝트를 실황으로 기록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The Greatest Night in Pop*)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곡은 라이오넬 리치와 마이클 잭슨이 협업하여 공동으로 작사, 작곡하였으며, 퀸시 존스(Quincy Jones)가 프로듀서로 참여하여 전체적인 사운드 구성을 담당하였다.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던 이 프로젝트는 ‘유에스에이 포 아프리카’(USA for Africa)라는 구호 아래 아프리카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결집하였으며, 음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함으로써 음악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선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 개최되어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된 “라이브 에이드”(Live Aid) 공연으로 확장되어 음악이

20)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를 다룬 신문기사들에서 “한국판 위 아 더 월드”라는 표현이 반복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일은 늦으리」 공연,” 『조선일보』, 1992년 10월 25일; “「내일은 늦으리」 환경보호 온 국민 대합창,” 『조선일보』, 1992년 10월 23일; “조선일보사 「환경캠페인」 가요 모음집 “내일은 늦으리,” 『조선일보』, 1992년 9월 26일.

사회운동을 촉발하는 강력한 문화적 장치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 참여 캠페인의 유행은 호주의 “턴 백 더 타이드”(Turn Back the Tide), 일본의 “지구 90” 공연을 통해 환경 보호 운동으로 확장되었으며,²¹⁾ 한국의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를 하나의 캠페인 차원의 행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음악 창작과 공연을 중심으로 전개된 문화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독자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뮤지션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음악 창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더 나아가 본 프로젝트는 단순히 대중에게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환경 보전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는 목적에 그치지 않고, 통상 ‘판따라’로 불리며 사회적 위상이 낮게 평가되던 대중음악인이 현실 문제를 반영하고 사회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신해철은 한 인터뷰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솔직히 저 자신도 이 멤버들이 한 자리에 보일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공감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공연입니다. 가수들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합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중음악인들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²²⁾

한 보도 자료에서는 서구와 달리 ‘대중음악’을 정당한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 현실을 지적하며, 창작과 연주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사회적 목소리를 구현한 이번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아티스트’라는 호칭이 타당함을 논하고

21)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 등 폭발적 인기,” 『조선일보』, 1992년 9월 22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9220023911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9-22&officeId=00023&pageNo=14&printNo=22116&publishType=00010> [2025년 8월 29일 접속].

22) 권혁중, “젊은 아티스트들,” 『조선일보』, 1992년 10월 27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102700239102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10-27&officeId=00023&pageNo=2&printNo=22151&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있다.²³⁾ “내일은 늦으리” 사례를 통해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고 작가 의식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이들의 음악은 단순한 연주자나 가수를 넘어 대중과 소통하며 사회적 실천을 수행하는 ‘주체적 창작자’로서 기능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는 환경 보전 운동의 일환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내에서 음악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 의미 있는 계기로 작동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대상을 수상했던 무한궤도의 주역이자, 당시 넥스트(N.EX.T)의 멤버로 활동했던 신해철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총괄 프로듀서를 담당하면서 주제곡 《더 늦기전에》를 작사, 작곡하고, 노래와 연주로 참여했다. 『90년대를 빛낸 명반 50』에 따르면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에는 ‘환경’이라는 하나의 콘셉트로 모여 악기 연주가 가능한 뮤지션들이 하나의 밴드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방송사 특집으로 간간히 방송되는 이벤트성 콘서트와 비교되는 다른 점이 존재했다.²⁴⁾ 1992년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봄여름가을겨울, 푸른하늘, 넥스트, 공일오비, 신승훈, 윤상, 이승환, 김종서, 이덕진, 신성우는 환경 보전을 주제로 신곡을 기증하고, 타이틀 곡 《더 늦기 전에》를 함께 노래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각 아티스트들이 직접 곡을 쓰고 연주까지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타이틀곡은 참가자 전원이 파트를 나누어 노래하는 방식으로 녹음되었다.²⁵⁾ 녹음은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서울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 뮤지션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드러내며 역할을 분담하였다. 넥스트의 신해철이 작사, 작곡과 신시사이저를, 공일오비의 정석원이 피아노를 맡았고, 키보드는 푸른하늘의 유영석, 리듬 기타는 봄여름가을겨울의 김종진, 퍼스트 기타는 넥스트의 정기송, 세컨드 기타는 공일오비의 장호일, 드럼은 봄여름가을겨울의 전태관, 베이스는 윤상 등이 연주했다.²⁶⁾ 신해철의 주도 아래 제작된 해당 앨

23) 권혁중, “젊은 아티스트들” [2025년 1월 18일 접속].

24) 신승렬, 김영대, 오준환 외, 『90년대를 빛낸 명반 50: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 1990년대』, 86.

25) “가요앨범 리뷰: 내일은 늦으리,” 『한국대중가요앨범 1100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6098&cid=60487&categoryId=60497> [2025년 1월 15일 접속].

26) 권혁중, “「환경」 대합창,” 『조선일보』, 1992년 10월 16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101600239109001&editNo=>

범은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9곡으로 구성되었는데,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92 내일은 늦으리》 앨범은 발매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음반판매순위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²⁷⁾

III. 싱어송라이터의 환경 보전 실천과 음악적 형상화

“내일은 늦으리”(1992)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싱어송라이터들은 각자의 정규 앨범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음악 편곡과 환경 오염을 주제로 한 비판적 가사를 통해, 자신들의 주제 의식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음악 차트의 주요 주제가 대체로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에 집중되어 있던 양상과는 뚜렷이 구별되었다. 예를 들어, 변진섭의 《희망사항》(1990년 1위), 김민우의 《사랑일뿐야》(1990년 2위),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1991년 1위), 윤상의 《이별의 그늘》(1991년 2위),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1991년 3위) 등은 당시 차트 상위권을 장식했던 대표적인 발라드 중심의 사랑 노래들이다.²⁸⁾ 반면 1992년의 음악 차트에는 “내일이 늦으리”에 참여했던 이들이 주요 순위권을 장식하였는데, 봄여름가을겨울의 《10년전의 일기를 꺼내며》(1992년 1위), 넥스트의 《도시인》(1992년 2위),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1992년 4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1992년을 기점으로 내면적 성찰과 사회 비판적 시선을 담은 곡들이 대중의 공감을 획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음악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세계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어송라이터의 작품에는 작가 의식의 유무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 중 하나

1&printCount=1&publishDate=1992-10-16&officeId=00023&pageNo=9&printNo=22140&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27) “「내일은 늦으리」 테이프 무료배포,” 『조선일보』, 1992년 12월 22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122200239129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12-22&officeId=00023&pageNo=29&printNo=22207&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28) 음악 순위에 관한 정보는 음악 전문 플랫폼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멜론(Melon)의 “시대별 차트”의 순위 정보를 참고했다.

는 대중음악이라는 관행적 틀 안에서 기성 가요와 유사한 사랑 노래를 부르던 싱어송라이터들이 의기투합하여 환경 보전이라는 사회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작가 의식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다음은 《92 내일은 늦으리》 음반의 수록곡 목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92 내일은 늦으리》 음반의 수록곡

연번	제목	가수명	작사	작곡
1	더 늦기전에 (Themesong)	전원	신해철	신해철
2	잃어버린 하늘	신승훈	신승훈	신승훈
3	나를 용서해 주오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서태지
4	우리가 설 이땅	푸른하늘	유영석	유영석
5	봄의 미소	이승환	이승환	이승환
6	1999	N · EX · T	신해철	신해철
7	철이를 위한 영가	김태우(015B)	정석원	정석원
8	숨쉬고 싶어	김종서, 이택진, 신성우	이승호, 서영진	이승호, 서영진
9	어제의 기억으로	윤상	윤상	윤상

* 음반에 수록된 제목과 가수명을 그대로 명시한 표이다.²⁹⁾



29) “가요앨범 리뷰: 내일은 늦으리” [2025년 1월 15일 접속].

〈표 1〉의 수록 곡목을 살펴보면, 《92 내일은 늦으리》 음반은 타이틀곡 《더 늦기 전에》를 비롯하여 신승훈의 《잃어버린 하늘》,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를 용서해 주오》, 푸른하늘의 《우리가 설 이 땅》, 이승환의 《봄의 미소》, 넥스트의 《1999》, 공일오비의 《철이를 위한 영가》, 김종서, 이덕진, 신성우가 함께 부른 《숨쉬고 싶어》, 윤상의 《어제의 기억으로》 등 총 9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앨범 수록곡의 가창자와 작사·작곡자를 대조한 결과, 김종서, 이덕진, 신성우의 《숨쉬고 싶어》를 제외한 모든 곡은 가창자와 음악 창작자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해당 음반의 수록곡들이 단순히 대중음악적 소비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음악에 반영하고 직접 노래함으로써 메시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는 대중적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싱어송라이터의 작가주의적 행위를 언급한 이영미³⁰⁾의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총책임을 맡았던 신해철은 “가수들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합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중음악인들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³¹⁾라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타이틀 곡 《더 늦기전에》는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하늘을 바라 볼 때에 /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두눈 속에 담게 해주오”라는 가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자’라는 호소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류가 환경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을 낭만적 정서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곡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³²⁾ 어린 시절에 가서 놀던 냇물에 회색 거품이 가득하고, 공장 굴뚝의 연기로 인해 내일의 꿈이 흐릿하게 흩어지는 장면을 가사로 생생하게 그리면서 더 늦기 전에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신해철은 가사에서 현대 사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하며 회색빛으로 표현했다. “회색거품”, “회색 빌딩숲”, “공장 굴뚝의 자욱한 연기”, “흐린 하늘” 등의 가사가 그 예이다.

30)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44.

31) 권혁중, “젊은 아티스트들” [2025년 1월 18일 접속].

32) 한동윤, “25년 전 역사적인 ‘내일은 늦으리,’” 『주간경향』, 2017년 11월 14일, <https://weekly.khan.co.kr/article/201711141417581> [2025년 3월 31일 접속].

〈그림 3〉 “내일은 늦으리” 주제가 《더 늦기전에》³³⁾

내일은 늦으리 신해철 작사·작곡

(전주)

1. 생 각 해 보— 면 힘들었 던 지 난 세월 앞만올라-며 숨차게달 러 여 기 에 왔- 지—
 2. 어 린 시 절— 에 뛰놀던 정 든 냇 물은 회색거품-을 가득싱고 서 흘 러 가 고 —

가 야 할 길— 이 아직도 남 아 있지만 이제여 가시 걸어온 길-을 돌아 보 네—
 공 장 굴-에 자욱한 연 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하 늘-로 흩 어 지 네—

(피아노솔로)

하 늘 끝 까 지 켜은 회색 빌 딩숲 이 것이 우리가 원한— 전 부 인 가—
 그 누 구 가 미 래를 약속 하 는가 이젠 느껴야 하네 더 늦 기 전 에

그 언젠가 아이 돌아자 리서— 밤 하 늘 을 바라볼— 때에
 하늘 가득 반짝 이는 별 들을— 두 눈 속 에 담게 해주오—

(간주)

(허밍)

Fine



33) “내일은 늦으리” 환경보호 온 국민 대합창” [2025년 1월 18일 접속].

《더 늦기 전에》는 피아노 독주로 시작하여 점차 풀 밴드 편성으로 확장되면서 보컬 코러스, 스트링, 일렉트릭 기타 솔로 등이 차례로 가미되어 음악적 다이내믹을 극대화한다. 전체 길이가 5분 53초에 이르는 이 곡은 1절과 2절 사이에 짧은 간주를 삽입하고, 또한 2절에서 프리코러스로 이어지는 구간에도 간결한 간주를 배치함으로써 청자가 메시지를 되새길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한다. 이러한 간주의 효과는 1절이 끝난 후 2절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되며, 화성 진행과 음악적 양식의 변화를 통해 곡의 분위기 전환을 유도한다.

〈그림 4〉 《더 늦기 전에》 프리코러스 부분



특히 후렴 직전 제시되는 프리 코러스 파트에서의 “늦기 전에”라는 가사는 4분음표 단위로 리듬을 설정하여, 앞선 16분음표의 최소 단위로 전개되던 멜로디와 대비되는 느려진 호흡을 형성한다. 여기에 음이 한 단계씩 상행하는 선율을 결합함으로써 곡의 주제 의식을 청자의 인식 속에 강하게 각인시킨다. 이후 후렴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합창 형태로 가사가 반복되며 주제가 더욱 강조되고, 이를 통해 곡은 메시지적 설득력을 한층 강화한다. 노래의 마지막 후렴구에서는 서태지의 내레이션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 우리는 저 별마저 외면하고 떠나보내야만 하는가”가 더해지며 곡이 마무리된다. 이 내레이션은 환경 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청자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고, 메시지의 울림을 더욱 깊게 만든다. 신해철은 1991년에 발표한 솔로 2집 《Myself》의 《재즈카페》에서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랩 형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선율에 포함되지 않는 내레이션, 랩과 같은 형식은 곡의 주제 양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법을 사용할 때 질문 형식으로 마무리하면서 청자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주제 의식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스스로 사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두 번째 수록곡인 신승훈의 《잃어버린 하늘》은 《더 늦기전에》와 유사한 주제 양상을 가진다. 노래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에는 “때문지 않은 세상”이 담겨 있지만, 현실은 그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드러낸다. 가사에서는 어린 시절의 파란 하늘과 무지개를 회상하며 잃어버린 추억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호소가 중심을 이룬다. 특히 “파란 하늘”이 “어둔 회색빛”으로 변한 이유를 되묻고, “그림 같은 세상 / 그 속에 그려두었던 별 하나와 나의 꿈은 지금 어디에 / 하나 둘씩 잃어버린 추억 / 우리 다시 찾아가야 해”라는 가사를 통해 과거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승훈은 ‘환경 문제’나 ‘인간 소외’ 등 사회적 메시지를 음악 속에 담아, 단순한 감성 발라드의 범주를 넘어 보다 설득력 있고 확장된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다.³⁴⁾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를 용서해 주오》는 일렉트릭 기타 한 대의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연주되는 인트로로 전개된다.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대중음악 형식과 달리 1절 중간에 간주가 삽입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음악적 실험은 앨범 전반의 수록곡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돌이킬 수가 없어 / 나를 용서해주오”라는 가사 직후, 음악은 장르와 조성 모두에서 급격한 전환을 맞는다. 곡은 G 메이저에서 E 마이너로 전조되며, 디스토션이 가득한 일렉트릭 기타 리프, 강렬한 드럼과 베이스 비트, 더블 템포의 진행을 통해 록의 에너지로 폭발한다. 이에 맞춰 가사 또한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고도 / 우리는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보답의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는 직설적이고 날 선 메시지로 변화한다. 또 다른 특이점은 록 사운드로 전환된 긴 연주 파트가 끝난 뒤, 다시 초반의 인트로 리듬이 오버랩되며 곡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대중음악 형식을 벗어나려는 실험적 시도로 환경 파괴라는 주제를 음악적 형식 자체를 통해 각인시키려는 작가적 의식을 드러낸다.

푸른하늘의 《우리가 설 이땅》과 이승환의 《봄의 미소》는 환경 오염의

34) “우리감성 맞는 가요볼러 연속히트,” 『조선일보』, 1993년 12월 10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312100023913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3-12-10&officeId=00023&pageNo=34&printNo=22542&publishType=00010> [2025년 3월 31일 접속].

심각성을 다른 다른 수록곡들에 비해 음악적 심도는 비교적 낮고, 상대적으로 경쾌한 편에 속한다. 이는 장조 조성과 미디엄 템포라는 음악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설 이땅》에서는 ‘소음’, ‘공장 폐수’, ‘자동차 매연’ 등 직접적인 환경 관련 소재를 언급하며 청중에게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다른 수록곡들과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또한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새롭게 꽃 한 송이를 피우는 일이 / 빠른 생활 속에서 부담으로 다가 온다 해도 / 피어 있는 꽃은 지켜주어야겠지”라는 가사를 통해 전달한다.

이승환의 《봄의 미소》는 봄이 주는 설렘과 자유롭고 행복한 감정을 가사를 통해 표현한다. 노래 속 화자는 이러한 봄의 감정을 누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 얻을 걸 베풀 시간 /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봄”이라는 가사로 청중에게 설득력을 부여한다. 이는 당연히 누려왔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후세에도 전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미디엄 템포와 어쿠스틱 기타 반주를 활용한 음악적 표현은 청중으로 하여금 봄의 아름다움에 공감하게 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환기하도록 기능한다.

신해철, 정기승, 이동규의 3인조 라인업 벡스트의 《1999》는 테크노와 록, 일렉트로닉스 등 다양한 음악³⁵⁾을 활용하여 음침하고 암울한 7년 뒤의 미래 이미지를 제시하고 상상을 통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 곡은 이상 기후로 인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가상의 지구를 그려낸다.³⁶⁾ ‘오존층 파괴’, ‘산성비’, ‘대기 온도 상승’ 등의 지구 환경 변화를 통해 ‘생존자’, ‘기형아’, ‘피부암’, ‘탈모’ 등 인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소재를 제시하였으며, 신해철의 내레이션, 신시사이저에 기반한 전자 악기 사운드, 사람들의 비명 소리 등을 통해서도 현대 문명에 대한 경고를 하며 “세기말의 분위기”³⁷⁾를 나타

35) 홍장원, “시대를 27년이나 앞서간 1992년 ‘내일은 늦으리’의 추억,” 『매일경제』, 2019년 5월 3일, <https://www.mk.co.kr/news/culture/8801029> [2025년 3월 31일 접속].

36) 한동윤, “25년 전 역사적인 ‘내일은 늦으리,’” 『주간경향』, 2017년 11월 14일, <https://weekly.khan.co.kr/article/201711141417581> [2025년 3월 31일 접속].

37) 홍장원, “시대를 27년이나 앞서간 1992년 ‘내일은 늦으리’의 추억” [2025년 3월 31일 접속].

났다. 이러한 사운드적 요소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 곡에서 신해철은 지구의 종말을 목도하는 최후의 생존자로 설정되어 음성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의 내레이션은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긴박감을 드러내며 이러한 서술적 장치는 곡의 극적 효과를 한층 강화했다.³⁸⁾

과감한 편곡의 사례로는 공일오비의 《철이를 위한 영가》를 들 수 있다. 이 곡은 반주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객원가수 김태우의 목소리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된다. 음악의 3요소인 선율, 리듬, 화성 가운데 화성을 배제함으로써 수직적 울림 대신 수평적 선율의 흐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청자가 오롯이 가수의 목소리와 감정, 그리고 가사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이 곡은 별도의 전주 없이 가창자의 한숨 소리로 노래가 시작된다.

〈그림 5〉 〈철이를 위한 영가〉 후렴



가사 속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빠르게 /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많이”, “아무 생각 없이 / 아무 대책 없이 / 달려만 왔지”라는 구절은 염세적 비판의 태도를 드러내며, 특히 “조금 더”라는 멜로디는 연속적인 상행 구조와 크레센도의 다이내믹을 통해 주제 의식을 더욱 부각한다. 이는 황폐화된 지구를 무력

38) 한동윤, “25년 전 역사적인 ‘내일은 늦으리’” [2025년 3월 31일 접속].

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체의 허무와 상실감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였다.³⁹⁾ 공일오비는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 이전에도 환경과 관련된 음악을 발표해왔다. 그들의 2집 앨범 《Second Episode》(1991년)의 첫번째 트랙 《4210310》은 환경청의 전화번호를 노래 제목으로 사용해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1992년 발매한 3집 《The Third Wave》 앨범에서는 《적(敵) 녹색인생》, 《먼지끼 세상엔》을 추가로 발표하며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이들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수의 작품을 통해 이미 주제 의식을 꾸준히 드러내 왔으며,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에서는 연주적 요소를 배제하고 가창에 집중하는 파격적인 편곡을 시도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였다.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를 위해 한 팀으로 뭉쳤던 김중서, 이덕진, 신성우는 《숨쉬고 싶어》를 통해 환경 문제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이들의 음악은 일렉트릭 기타 리프와 솔로 라인, 보컬 샤우팅, 리듬 섹션 등 록의 전형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비장한 정서를 자아냈다. 또한 “강물은 기름으로 덮여 있어서 / 고기를 숨이 막혀 죽어버렸어”, “거리에 쌓여가는 자동차들 / 안개를 닦아가는 아파트 빌딩 숲”, “나 이제 이 모든 걸 벗어나서 숨쉬고 싶어”와 같은 가사는 환경 오염의 구체적 실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청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했다.

신승훈의 《잃어버린 하늘》에서 나왔던 ‘파란 하늘’이라는 소재는 윤상의 《어제의 기억으로》에서도 주요한 소재로 작용한다. 이 곡에서 윤상은 과거에 자신이 바라보았던 파란 하늘과 눈부신 햇살, 그리고 향기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 모두가 잃어버린 것 / 쉽게는 돌아오지 않을 / 어제의 시간들”이라는 가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를 얻은 대신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음악적으로도 이 곡은 당대 대중음악의 문법을 벗어나 독자적인 실험성을 보여주었다. 신시사이저 음색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세련되고 도시적인 감각을 드러내는 동시에, 선율 진행에서는 과거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련한 정서를 표현했다. 특히 노래의 첫

39) 한동윤, “25년 전 역사적인 ‘내일은 늦으리’” [2025년 3월 31일 접속].

소절 이후 1분이 넘는 긴 간주를 삽입한 과감한 편성은 당시 대중가요에서는 보기 힘든 시도로 평가된다. 이 긴 간주는 곡의 1절 이후와 아웃트로에서도 반복되며, 청자로 하여금 사라져버린 자연과 그에 얽힌 기억들을 환상처럼 떠올리게 하는 효과를 준다.

정리하면 《92 내일은 늦으리》에서 나타나는 싱어송라이터의 작가 의식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음악 속에 투영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면의 양상을 다루는 것과 현상 비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양상이다. 전자의 경우,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이라는 가사로 시작하여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 회색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라는 구절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주제곡 《더 늦기 전에》를 비롯하여, 신승훈의 《잃어버린 하늘》, 푸른하늘의 《우리가 설 이 땅》, 이승환의 《봄의 미소》, 윤상의 《어제의 기억으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곡들은 개인적 성찰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를 내면화하고 이를 음악적 서사로 형상화하였다. 반면 후자의 경우, 서태지의 《나를 용서해 주오》, 넥스트의 《1999》, 공일오비의 《철이를 위한 영가》, 이덕진, 신성우, 김종서의 《숨쉬고 싶어》 등은 비판적 시선을 기반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들 곡은 단순한 개인적 성찰을 넘어서 환경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고,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이들은 록, 테크노, 무반주 음악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형상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메시지의 전달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음악적 선택은 단순히 장르적 실험을 넘어서 곡의 주제 의식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으로 기능하였다.

수록곡 전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회색’이라는 특정 상징 색상을 통해 표현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의 아름다웠던 풍경을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묘사한 방식과 뚜렷이 대비된다. 곡의 가사에서 드러나는 문명 비판적 태도는 회화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성보다는 지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1992년의 시점에서 바라본 과거는 되돌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미적으로 재현되었으나 현재와 미래는 대체로 암울하고 어두운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음

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싱어송라이터들의 공통된 시각을 반영한다. 환경 오염을 주제로 하는 음악적 재현에 있어 주제의 구체적 양상이나 가사 표현, 음악적 형상화 방식이 창작을 주도한 아티스트마다의 차이가 있었지만, 동일한 사회적 의제를 공유하고 이를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싱어송라이터들의 창작은 결과적으로 한국 대중음악이 사회 현실과 적극적으로 맞닿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기능하였다. 이처럼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주관을 작품에 담아냈던 싱어송라이터들의 실천적 태도는 대중음악의 주제와 표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IV. 나오며

1992년 개최된 환경 보전 프로젝트 “내일은 늦으리”는 공연과 음반 발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던 11개 팀이 참여한 이 공연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대중의 환경 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본 프로젝트가 국내에서 가능했던 배경 중 하나로는 서구 팝 음악계에서 사회 참여를 독려했던 “위 아 더 월드”와 “라이브 에이드”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1990년대라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뮤지션들이 환경 보전을 주제로 창작 활동을 수행하고, 공연 및 음반 제작을 주도하며 자선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정규 앨범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과감한 음악적 편곡과 직접적인 가사를 통해 참여 아티스트들의 작가 의식을 표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환경 보호 캠페인과 콘서트, 음반 제작이 조선일보사와 한국연예제작협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나 행사 안에서 실제로 작가 의식을 담아 음악적 수행을 담당할 주체는 참여 아티스트들이었다. 이들은 작사, 작곡, 가창, 악기 연주를 수행한 싱어송라이터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는 음악을 매개로 참여 아티스트들의 작가 의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대중음악인 역시 의식 있는 음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국내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2년에 발표된 《92 내일은 늦으리》 앨범 수록곡의 가사에서는 몇 가지 공통된 경향이 관찰된다. 자연 환경은 ‘과거의 것’으로 묘사되며,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는 되돌아가고 싶은 이상적이고 미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반면 현재와 미래는 ‘파란 하늘’, ‘무지개’와 같은 원색이 가득했던 과거의 공간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회색빛의 어둡고 암울한 세계로 표현된다. 이러한 대조는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회복과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서사적 장치로 작동한다. 이들은 회화적인 이미지와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개인적 차원의 작가 의식과 사회 비판적 차원의 작가 의식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통해 음악적으로 형상화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억, 회상과 같은 내면적 성찰을 담아 환경 문제를 삶의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사회 비판적 차원에서는 환경 파괴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통해 공공 담론을 형성하고, 청자를 향한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촉구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러한 이중적 양상은 《92 내일은 늦으리》 앨범이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싱어송라이터의 ‘작가 의식’을 음악적으로 구현한 중요한 사례임을 보여준다.

1990년대의 싱어송라이터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보다 강한 작가 의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중과의 교감 또한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의 태도와 실천적 행위는 음악 창작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담론 형성과 자선 활동 등 음악 외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국내 싱어송라이터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작가적 신념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노래했던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들의 작업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은 대중음악 속 ‘작가 의식’의 의미와 가능성, 나아가 음악적 형상화 방식에 관한 고찰 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중요한 학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본 연구는,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사회적 의제에 대한 대중음악인의 참여와 실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들이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작가 의식’

을 구현하는 방식이 단절적이지 않고 시대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음악 창작자들에 관한 연구는 한국 대중음악 속 '주체적 창작'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대중음악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방향성을 제안하며 그 과정에서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의 음악과 사회적 실천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의의를 둔다. 향후 이러한 창작자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한글검색어: 내일은 늦으리, 환경 보전 콘서트, 싱어송라이터, 작가 의식, 음악적 형상화

영어검색어: It Will Be Tomorrow,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cert, Singer-Songwriter, Artistic Consciousness, Musical Representation

참고문헌

- 박애경.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책세상, 2000.
- 박준흠. 『대중음악 Sound 3』. 서울: 포노, 2011.
- 신승렬, 김영대, 오준환, 박찬우. 『90년대를 빛낸 명반 50: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 파주: 한울, 2006.
- 이규탁. 『케이팝의 시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 이소진. “1970년대 한국 싱어송라이터의 작가의식과 표현 양상 고찰.” 『예술·디자인학연구』 24/2 (2021): 27-32.
- _____. “동아기획의 음악적 실천과 가요사적 의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서울: 민속원, 2006.
- 조일동. “1990년대 한국대중음악 상상력의 변화: 전자악기와 샘플링, 그리고 PC 통신.” 『음악논단』 43 (2020): 165-195.

신문 기사

- 권혁중. “젊은 아티스트들.” 『조선일보』, 1992년 10월 27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102700239102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10-27&officeId=00023&pageNo=2&printNo=22151&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 _____. “「솔직한 音樂」 지향...강렬한 메시지.” 『조선일보』, 1993년 1월 8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3010800239109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3-01-08&officeId=00023&pageNo=9&printNo=22222&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 _____. “「환경」 대합창.” 『조선일보』, 1992년 10월 16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101600239109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10-16&officeId=00023&pageNo=9&printNo=22140&publishType=00010> [2015년 1월 18일 접속].
- 장유정. “[장유정의 음악 정류장] [120] 내일은 늦으리.” 『조선일보』, 2024년 4월 18일,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04/18/

E3CFNKDLRNHYBGSHZ7OO6R4WVE/ [2025년 1월 20일 접속].

한동윤. “25년 전 역사적인 ‘내일은 늦으리’.” 『주간경향』, 2017년 11월 14일, <https://weekly.khan.co.kr/article/201711141417581> [2025년 3월 31일 접속].

홍장원. “시대를 27년이나 앞서간 1992년 ‘내일은 늦으리’의 추억.” 『매일경제』, 2019년 5월 3일, <https://www.mk.co.kr/news/culture/8801029> [2025년 3월 31일 접속].

“‘내일은 늦으리’ 테이프 무료배포.” 『조선일보』, 1992년 12월 22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122200239129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12-22&officeId=00023&pageNo=29&printNo=22207&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우리감성 맞는 가요볼러 연속히트.” 『조선일보』, 1993년 12월 10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312100023913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3-12-10&officeId=00023&pageNo=34&printNo=22542&publishType=00010> [2025년 3월 31일 접속].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 등 폭발적 인기.” 『조선일보』, 1992년 9월 22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9220023911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9-22&officeId=00023&pageNo=14&printNo=22116&publishType=00010> [2025년 8월 29일 접속].

“「내일은 늦으리」 공연.” 『조선일보』, 1992년 10월 25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102500239116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10-25&officeId=00023&pageNo=16&printNo=22149&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내일은 늦으리」 환경보호 온 국민 대합창.” 『조선일보』, 1992년 10월 23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102300239115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10-23&officeId=00023&pageNo=15&printNo=22147&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조선일보사 「환경캠페인」 가요 모음집 “내일은 늦으리.” 『조선일보』, 1992년 9월 26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92600239101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9-26&officeId=00023&pageNo=1&printNo=22120&publishType=00010> [2025년 1월 18일 접속].

음반

신승훈, 서태지와 아이들, 푸른하늘 외. <92 내일은 늦으리>. 대영기획 DYS-017, 1992.

인터넷 자료

“가요앨범 리뷰: 내일은 늦으리.” 『한국대중가요앨범 1100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6098&cid=60487&categoryId=60497> [2025년 1월 15일 접속].

매니아DB, <https://www.maniadb.com/main/> [2025년 1월 15일 접속].

멜론(Melon), <https://www.melon.com> [2025년 1월 15일 접속].

조선일보 환경운동 사이트, <http://grand.chosun.com/sub5.html> [2025년 1월 18일 접속].

국문초록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의 환경 보전 실천과 음악적 형상화: “92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 소 진 · 유 옥 란

본 논문은 1992년 조선일보가 주도한 환경 보전 캠페인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를 사례로, 1990년대 한국 싱어송라이터의 환경 인식과 음악적 형상화 방식을 분석한 연구이다.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함께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공연과 음반 발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11개 팀의 뮤지션들이 참여하여 대중의 환경 의식을 환기하고 참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타이틀 음반 《92 내일은 늦으리》에 수록된 9곡의 가사와 음악적 표현을 분석한 결과, 참여 아티스트들이 시각적 상징성과 직접적 서사를 결합하여 환경 보전의 메시지를 구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적 성찰과 사회적 비판 의식을 아우르는 작가적 태도를 통해 싱어송라이터들이 단순한 공연 참여자를 넘어 주체적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대중음악 속 작가 의식의 의미와 가능성을 규명하고 환경 담론과 음악 창작의 관계를 탐구하는 향후 연구의 학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actices and Musical
Representation of Singer-Songwriters in the 1990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1992 It Will Be Too
Late Tomorrow* Project

Lee, Sojin · Yu, Ok Ran

This study examines *the It Will Be Too Late Tomorrow* project, an environmental preservation campaign organized by The Chosun Ilbo in 1992, as a case study to analyze how Korean singer-songwriters in the 1990s perceived and artistically represented environmental issues. Conducted alongside the “Reduce Waste” campaign, the project was developed through concerts and album releases, with eleven music teams participating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courage civic engagement.

By analyzing the lyrics and musical expressions of the nine tracks included in the album *It Will Be Too Late Tomorrow '92*, this study reveals that the participating artists combined visual symbolism with direct narrative techniques to convey message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Furthermore, their artistic attitudes, encompassing both personal introspection and social criticism, demonstrate that singer-songwriters went beyond the role of mere performers to assert themselves as autonomous creators and socially engaged artist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seeks to clarify the meaning and potential of artistic consciousness within 1990s Korean popular music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discourse and musical creation.

[논문투고일: 2025. 08. 30]

[논문심사일: 2025. 09. 19]

[게재확정일: 2025. 09. 23]